

# 북갑·광산을 공식... 서갑 박혜자 단수추천 '뒷말'

### 더민주 지역위원장 222곳 발표...경선 6곳·공석 20곳

### 광주·전남 5곳 공석...나머지 지역구 총선 출마자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6일 광주·전남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 지역위원장 단수 임명 및 경선 지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광주 서구 갑 등 일부 지역위원장 임명 및 경선 결정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일부 비대위원들이 충돌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조강특위(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지역위원장 후보자 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단수 추천 222개 지역위원회와 경선 6개 지역위원회, 그리고 20곳의 사고위원회를 의결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을과 북구 갑이 사고 지역위원회로 결정됐으며, 서구 갑에서는 이상을 뒤엎고 박혜자 전 의원이 지역 위원장으로 단수 임명됐다. 나머지 지역구는 모두 총선 출마자가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광주 서구 갑의 경우, 송갑석 총선 후보자와 박혜자 전 의원의 경선이 유력시됐으나 조강특위에서는 박 전 의원을 지역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했다.

이를 두고, 비대위에서는 이상훈 원내대표 등 일부 비대위원들이 원칙이 없는 추천 결과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 전 의원은 당시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 도미노 상황에서 더민주에 잔류했다는 점에서 당 차원에서 빛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을, 순천 등 3곳이 사고 지역위원회로 결정됐다.

또 고흥·보성·강진·장흥 지역구는 당초 단수 추천됐으나 비대위에서 조강특위에 경선 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고흥·보성·강진·장흥 지역구는 지난 총선 후보자였던 신문식 전 의

### ■더민주 광주·전남 지역위원장

□광주	
동구남구(갑)	최진
동구남구(을)	이병훈
서구(갑)	박혜자
서구(을)	양항자
북구(을)	이형석
광산구(갑)	이용빈
□전남	
여수시(갑)	송대수
나주·화순	신정훈
광양·곡성·구례	김재무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해남·완도·진도	김영록

※ 사고위원회 : 광주북구(갑), 광산(을), 전남목포, 여수(을), 순천  
원과 국민의당에서 더민주로 다시 돌아온 김승남 전 의원의 경선이 유력시된다.  
광양·구례·곡성은 우윤근 전 의원이 국

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김재무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더민주 조강특위가 광주·전남지역 지역구 가운데 단 한 곳도 경선 지역으로 결정하지 않아 반축을 사고 있다.

특히, 광주 서구 갑의 경우, 조지강화 특위가 제시한 원칙에도 맞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조강특위는 앞서 ▲총선에서 개인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이 차이가 많이 난 후보 ▲총선에서 여러 차례 낙선한 후보 ▲총선에서 2위가 아닌 3위로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갑석 전 후보자는 "조강특위에서 제시한 조건에 단 하나도 미비된 점이 없다"며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당 지도부에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조강특위는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지역위원회 후보자를 공모, 전국 252개 선거구 지역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의당 "7월 임시국회 열자"

### 새누리·더민주 '시큰둥'...추경안 제출시점 변수

제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지만 국민의당이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연이어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법상 임시회는 매년 2월, 4월, 6월에 여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에는 매월 쉬지 않고 열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만큼 현안이 많았고 국민으로부터 '노는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국민의당은 7월 임시회 소집의 명분으로 결산 심사를 내세웠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7월 임시회를 열자는 우리 당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쪽에서는 '리베이트 의혹' 수사를 받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보호하려는 '방탄국회'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국회가 열려 있어야 박·김 의원에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된 상황에 속이 뻔히 보이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각종 민생 법안을 심사하기 위

해 열자는 것"이라며 "열도당도않은 방탄국회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에 소극적이어서 7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당은 굳이 임시회를 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9일, 더민주 같은 달 27일에 전당대회를 여는 등 분주한 당내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또 굳이 임시회를 열지 않아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수는 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이 의결되면 이를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위해 이따 하순개 임시회를 소집하면 된다는 것이 양당의 생각이다.

다만, 더민주 측은 국민의당이 같은 야당이자 공조 대상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입장과 별개로 7월 임시회 소집의 다른 변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점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따라서 추경안이 일찍 제출될 경우 6월 임시회와 7월 임시회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심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최경환 새누리 당대표 불출마

### 이정현 오늘 출마 선언...친박 서청원 출마 여부 변수

비박(비박근혜)계의 중심점이 될 수 있었던 유승민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마저 고민 끝에 6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물급 주자 없는 '군웅할거'의 경선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화합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제단에 다시 한번 나를 바치고자 한다"면서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자신이 당 대표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뜻을 주위에 밝혀왔으나 친박계 내부에서 출마를 종용하면서 고민을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출마한 가

운대 호남 출신 이정현 의원이 7일 8·9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이로써 당에서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은 비박계 김용태 의원과 친박계 이주영 의원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난다.

이제 남은 변수는 현역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의 출마 여부다. 친박계 의원 10여명이 전날 서 의원을 찾아가 출마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서 의원은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현재까지 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계는 당권에 뜻을 두지 않는 유 의원이 내년 대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오는 10일 출마를 선언할 정병국 의원과 지난달 27일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의원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예결위 여야 간사, 주광덕·김태년·김동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3당의 간사를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간사는 새누리당 주광덕(재선·경기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3선·성남 수정), 국민의당 김동철(4선·광주 광산갑) 의원이다.

더민주 소속 김현미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청년

일자리 부족, 자영업자 경영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따뜻하게 안아 줄 수 있는 예결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오는 12~2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정가

## 천정배 '서구 호수공원 정비' 교부세 7억 확보

국민의당 천정배(광주 서구)국회의원은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광주 서구 '호수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7억원은 광주 서구의 대표적인 3대 호수공원인 전평 호수와 풍암 호수, 운천 호수의 노후 시설물 정비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구 관내 3곳의 호수공원은 도심 속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산책 및 운동장소로 이용되고



있지만, 주변 시설물들이 낡고 훼손돼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천 의원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호수 공원 내 시설물 정비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특별교부세를 통한 예산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이번 결실을 맺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개호, 도로 개설·배수로 정비 교부세 2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장성·영광·함평)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로 개설 확보장과 배수로 정비 등 지역숙원사업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배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담양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6억원), 고서 고읍 2리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3억원), 영광 불갑면 방미~모악 간 도로 확·포장(5억원), 장성 진원면 두월마을 진입로



확·포장(6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부분이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주민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때 2년이 채 안 되는 임기동안 118억원에 이르는 교부세를 확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